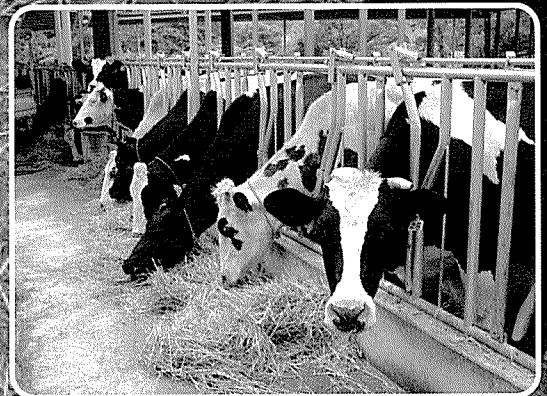


“저 먹는 것보다,  
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태호목장]

>>> [취재 오세진]



먹고 사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젖소에게도 마찬가지.

경북 경주시 평동 264 ‘태호목장’의 송용문(57)씨가 15년간 목장을 운영하며 한결같이 지켜온 생각이다.

설령 내 배가 고프더라도 소에게만은 최고급 사료를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것이 철칙.

“제가 소를 잘 먹이야 소는 좋은 우유와 고기를 주고, 결국 돌고 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며 허허 웃는다.

부인 김분선(50)씨를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4마리의 젖소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800여평의 대지 위에 70여두의 젖소가 ‘음메~’를 우렁차게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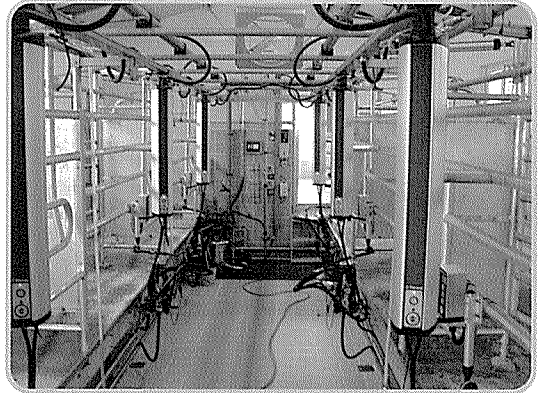
우연히 지인의 목장에 놀러갔다가 그렇그런한 눈으로 풀을 뜯고 있는 젖소에게 매력(?)을 느껴 낙농을 시작하게 됐다는 동심을 간직한 송씨.

하지만 소 한 마리를 우랑중으로 길러낸 다는 것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다.

‘힘들수록 감사하고 보람을 찾자’는 마음가짐으



▲ “젖소가 지어줬다(?)”는 집 앞에서 부부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최근 들여온 텐덤 착유기

로 IMF 위기도, 몸이 힘든 것도 극복해 나가며 가장 힘이 된 사람은 부인 김씨였다.

공들인 만큼 우수하게 성장해 주는 소들을 보며 점점 낙농에 재미를 느끼게 된 부인과 함께 오전 5시면 기상해 착유하며 늘어가는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것이 낙이 됐다.

이제는 3년 연속 평균 유량 30kg 이상, 지방률 4.0%, 체세포수 1등급의 육우를 보유한 어엿한 우수 낙농가로 자리매김 했다.

남양유업 경주공장에 우유를 조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축사 1동을 보수하고 6대의 텐덤 착유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도 완벽해 축사를 둘러보는 송씨 부부의 눈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다.

부인 김씨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꾸준히만 했더니 이렇게 고맙게 성장해 줘서 소들이 예뻐 보이기까지 한다니깐요. 나이 들어서 퇴직할 일도 없고, 이제와 생각해보니 소 키우는 것도 참 해볼만한 일인 것 같아요”라며 은근히 낙농업에 대한 애정도 과시한다.

태호목장이 (주)알파사료의 TMR 사료를 사용하



▲ (주)알파사료가 지난해 (주)CJ Feed와 기술제휴를 맺고 생산한 사료



▲ 왼쪽부터 부인 김분선씨, 남편 송용문씨, (주)알파사료 김일권 전문, (주)알파사료 이정근 대표

는 이유는 명확하다.

소들이 별 탈 없이 자라기 때문.

송씨는 “두당 알파사료의 TMR을 일 15kg 정도 6년째 급여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농장관리에 힘써 주는 것은 기본이고 육우의 번식, 건강 등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지요. 사료 등을 잘못 급여해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도 하면 회복하는데 최소 2년은 걸리니까 신뢰가 가는 곳만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라고 말한다.

이날도 농장을 둘러보러 태호목장을 방문한 이정근 알파사료 대표와 김수권 전문은 이들 부부의 성실함에 박수를 보낸다.

이정근 대표는 “태호목장은 알차게 목장을 운영하는 대표적 농가지요. 육우 성적이 1~2권에 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한눈 안 팔고 외길을 걸어온 두 분의 노력이 이룬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 규모나 시설 등으로 보아 이제는 거의 완성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알파사료는 효율적인 농장 관리와 사료공급을 위해 1997년 육우 200두 사육규모의 알파농장을 설립한데 이어 2004년에는 대지 1천200평, 육우 300두 규모의 제2실험목장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CJ Feed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여기에는 소를 직접 관리하며 연구해야 과학적인 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있었다.

송씨는 “알파사료의 숨은 노력은 잘 알고 있기에 마음 놓고 급여할 수 있지요”라고 말한다.

또한 “6년 전에는 소들이 집까지 지어줬어요”라며 축사 옆 동화책 속에서 나온 그림 같은 집을 가리킨다. 이 곳에서 고3인 아들 태호와 함께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다.

“태호의 진로는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태호가 낙농에 관심이 많고 가업으로 이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은근한 자랑과 기대를 내비치기도 한다.

아들 태호에게도 거짓말하지 않는 자연, 노력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자연의 섭리를 알아가는 솔솔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닐까. ㉞